

짓눌린 대학생, 존중받지 못하는 대학교수

이 효 인

영화평론가



밖에서든 안에서든 대학을 한 마디로 얘기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개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 개혁에 대한 의견들은 서로 상반된 것일지라도 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밖으로 드러난 대학생과 교수의 모습에 대해서만 말해보고 싶다.

몇 군데의 대학 강의실과 민간 단체의 강좌에서 내가 만난 대학생들은 참으로 다양하였다. 그들을 한 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공통적인 인상은 ‘무엇인가에 짓눌려 있다’는 것이었다. 언론이 몇 년 동안 말해온 신세대의 가치관과 그들의 표현 양식을 나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선생을 두려운 존재로 대하고 있었으며, 자기 표현에 앞서 남의 반응을 먼저 살피는 편이었다. 그들에겐 학부제가 어떤 기회라기보다는 다시 적응해야 하는 ‘또 하나의 현실’로밖에 보이지 않는 듯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생각과 표현 모두가 두드러진 독특한 학생도 간혹 있지만, 이런 학생은 예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몇몇을 두고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을 듯하다.

여하간 그들은 취직 문제로 주눅이 들어있으며, 그 취직에 영향을 끼치는 학점 ‘관리’에 아주 열중하고 있고, 또 취직 시험과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 교육과정 사이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동시에 그들은 세상의 무질서와 산업이 주도하는 사회적 변화에 적응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전형적인 대학생이기도 하였다. 대학생들의 이러한 불만과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묘안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들은 대학생이기에 앞서 취직과 결혼을 눈 앞에 둔 참으로 골치 아픈 젊은이인 것이며, 대학은 여전히 재정난과 인력난에 허덕이는 불행한 공동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서로 인정하지 않는 한, 교수들은 여전히 “요즘 애들은 정말...”하며 불평할 것이고, 학생들은 “체대로 된 교수가 없다.”는 불만만 쌓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잡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우선 선생들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생이 되기 전에 그들을 그토록 다그쳤던 입시 선생들과 대학 선생들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래서 학생들이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해야 한다. 위엄어린 학위와 원서로 가득찬 서가 그리고 학점이라는 칼자루를 손에 쥐고 있는 교수의 표정이 있는 한, 대학은 결코 개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대학생들도 역시 취직이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지는 않으며, 사회와 타협하는 것을 먼저 바라지도 않는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에서 소외되는 것이다. 취직을 못하더라도 평생을 버텨나갈 정신적 가치를 애타게 갈구하고 있으며, 모순적인 사회이지만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그것을 타파할 것인가를 그들은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물론 선생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선생이 앞장서서 그러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거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을 신념에 찬 목소리로 제시하지 않는 한, 학생들은 결코 대학의 가치와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학교 바깥으로 자꾸만 눈을 돌리는 것이다. 나는 누구보다 대학의 외국어 교육과 실용 학문 추구를 지지하는 편이다. 하지만 그것은 기본일 뿐이다. 대학은 여태 그러한 기본을 소홀히 했던 것이며 그것 때문에 겪는 갈등은 과도기적 현상일 뿐이라고 본다.

정말 중요한 것은, 대학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은 결국 선생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대학 선생이라고 해서 인격과 학문 모두를 책임질 수는 없다. 그러나 대학 선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만 선생은 접근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다. 보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개인이 아닌 집합으로서의 대학 교수는 교수라는 지위로서 대학 바깥에서 오히려 혜택을 누리는 사람일 뿐 대학 안에서 존중받는 집단은 아닌 듯하다. 그리고 대학생들도 이 점을 알고 있다. 그 갈등과 불신을 견지 않는 한, 결코 대학은 개혁될 수 없다. 먼저 학생들이 무엇에 짓눌려 있는가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피상적으로 보자면 대학생들은 대학을 단지 거쳐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대학은 그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이상과 희망'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

이호인 / 경희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성대 연극영화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중앙대 영화학과 박사과정에 재학하면서 중앙대, 서울예전 강사 및 영화평론가로 활동중이다. 주요 저서로 『한국영화역사상의 1』, 『한국의 영화감독 13인』, 『코리아 뉴웨이브』, 『영화 이미지의 미학』 등이 있고, "한국 영화의 근대성 연구 서설"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